

성명: 강현우

전적대학: 성균관대 공학계열

최종대학: 동신대학교 한의예과

•

• ① 러셀을 알게 된 계기와 선택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친구의 추천으로 러셀을 알게 되었고, 러셀의 장점을 알고 난 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수를 결심하고 저는 집 앞에 있는 독서실에 다녔습니다. 고 3 때의 경험과 실력, 마음가짐으로 충분히 혼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생활은 점점 나태해져 갔습니다. 늦게 일어나는 것은 물론, 독서실에 가서도 딴 짓을 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해서 학원에 다녀야겠다고 결심하고 학원을 알아보고 있던 중 러셀 평촌학원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러셀의 여러 장점을 듣고 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치동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온/오프라인 강사들이 출강한다는 점과 좋은 장학제도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직접 학원에 가서 자습전용관을 둘러보기도 하였는데, 그때가 쉬는 시간이었음에도 조용한 면학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셀에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② 러셀(바른공부 자습전용관)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프로그램 등)점은 무엇인가요?

쾌적한 환경의 바른자습 전용관, 선생님의 따뜻한 상담 등 러셀의 좋았던 점은 참 많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러셀 모의고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7월달부터 반수를 시작해서 남들보다 시간적인 압박을 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러셀 모의고사로 공부하면서 적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 가형의 경우 일정량의 킬러/준킬러 문제를 꾸준히 풀며 부족한 문제량을 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계산량이 많은 러셀 모의고사 준킬러 문제는 수능장에서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명과학 1 러셀 모의는 개념의 빈 부분을 보완하고 유형별 문제풀이 스킬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로 연습하고, 낯선 문제들에 적용하며 빠르게 실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 시기에는 러셀 과학탐구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과목당 두 개 이상씩 제공되어 감 유지와 양적인 문제풀이, 6/9월 평가원 신유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능보다 어려운, 그러나 터무니없이 어려운 느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적당히 어려운 난이도의 모의고사로 파이널까지 꾸준히 연습하니 실전력이 극대화된 상태로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 ③ 추천하고 싶은 현장강의나 선생님이 있나요?

저는 유현주 선생님의 이감모의고사 해설강의를 들었습니다. 두 분 다 도움이 되었기에 모두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선,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유현주 선생님만의 표기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문의 흐름을 잡고 읽어 갈 때, 선생님의 표기법으로 표시를 하며 읽어 내려가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으로 돌아올 때 지문의 전개와 자주 출제되는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기법을 다시 저만의 방법으로 다듬어 더욱 제게 잘 맞는 효과적인 표기법을 만들어 체화했습니다.

• ④ 과목별 학습 노하우가 궁금해요!

모든 과목에서 실력을 높이는 데 가장 훌륭한 학습 방법은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국어의 경우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놓고 분석하다 보면 평가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논리 과정을 익힐 수 있고, 현재의 평가원 시험의 트렌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의 트렌드까지 완벽하게 분석하고 익히고 나면 미래 평가원의 행보에 대해서도 대충 윤곽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6/9 월의 출제 기조를 보며 더 정교하게 수능의 난이도, 문제 유형 등을 얼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문의 전개 방식과 킬러문제의 논리를 유심히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9 학년도 6/9 월의 현대소설 출제 기조는 인물의 내면 의식 서술이었고, 파이널에 이러한 기조에 맞는 EBS 문학작품을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결국 수능장에서 제가 예상한 작품 중 하나인 천변풍경이 나와서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화제가 된 31 번 역시 6/9 월 대표적인 출제 기조인 비례/반비례 관계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들을 연도별로 차근차근 놓고 분석한다면 출제 경향성과 주기성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수학] 수학의 경우 시험장에서는 새로 발상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 사용된 발상들을 정리하고 익혀 시험장에서는 기계적으로 푸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문제를 풀다가 막히고, 해설지를 봤을 때 ‘세상에. 이 발상을 어떻게 떠올리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노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몇 번이고 복습하여 그 발상이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풀고 넘어가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논리의 발상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풀고 넘어가게끔 해야 합니다.

• ⑤ 슬럼프가 왔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사실 수험기간 전체가 슬럼프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이 힘들었습니다. 식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주중에는 급식을 먹었지만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에는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공차에서 버블티를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토요일에 먹을 점심을 생각하며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먹는 외식 등 사소한 것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에게 보상을 주었던 것이 힘든 나날들을 견디게 해 주었습니다.

• ⑥ 목표 대학 합격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싶은 것이 있나요?

저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 수험기간 동안 절대로 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능 직전에는 통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바이오투어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와 야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루를 견뎌낸 것에 대한 자신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드실 수 있겠지만, 우리 몸에게는 별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먹은 음식물들을 소화시키기 위해 계속 장 운동을 합니다. 잠을 자며 충분히 휴식해야 하는 장 근육이 쉬지 않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식을 먹은 다음 날에는 충분히 휴식하지 못 한 근육과, 근육을 움직이는 데 쓰인 에너지 소모로 여러분은 피로를 느끼게 되어 다음 날 공부에 집중을 못 하거나 졸게 될 수 있습니다. 수능에 최적화된 바이ורי듬을 만들기 위해 한달 전부터 커피를 끊고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3일에 한번 수능 시간표에 맞춰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또한 수능장 소음에 적응하기 위해 도서관 문 바로 앞 자리에서와, 마트의 푸드코트에서 국어 모의고사를 푸는 훈련을 했습니다. 3주 전부터는 배변 배뇨를 통제했습니다. 배변은 항상 저녁에 하고, 시험 시간을 피해 배뇨하기 위해 ‘물을 몇 시에 얼마나 마시고, 화장실은 몇 시에 간다.’ 등 규칙을 정해 놓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바이ורי듬을 조절했습니다.

- ⑦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 해주세요.**

임전무퇴. 피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학 30 번일수도 있고 국어 킬러 보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난 아직 저것들을 건드릴 실력이 안 돼.. 조금 더 실력이 쌓이고 풀어보자.’ 나약한 생각 마십시오.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포기보다는 실패를 하십시오. 국어 킬러 보기 문제든, 수학 30 번이든 해설지를 보기 전에 몇 번이고 고민하고 고민하십시오. 충분히 고민하고 수없이 실패한 후에 해설지를 보십시오. 실패의 경험들이 실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